

중국 IT기업들 삼성 제치고 아시아 1·2위

지난해 아시아 기업 시총

텐센트 1위·알리바바 2위

중국 스마트폰 결제 선도

중국 소비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과 은행의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중국 IT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러 환산 시가총액이 아시아기업 가운데서 각각 1위(4933억 달러), 2위(4407억 달러)를 차지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시총이 2016년 말보다 2.1배씩 늘었다. 중국 기업들의 시총

급증 영향으로 아시아 전체의 시가총액은 1년 전보다 30% 가깝게 늘며 세계 시가총액의 30%대 초반을 차지했다.

2016년 아시아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는 3428억 달러로 3위가 됐지만, 1년 전보다는 46% 늘었다고 니혼게이지는 소개했다. 일본기업 가운데는 소니나 닌텐도의 부활이 특징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순위 상위에는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포진했고 중국 기업 간 순위 변화도 심했다. 2014년까지 1위였던 페트로차이나는 6위로 후퇴했으며, 지난해 주역은 IT기업들이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제가 급속히 늘었다. 결제액은 2017년 7~9월엔 환산으로 500조엔(약 4754조원)에 달한 텐센트와 알리바바 2사가 90% 이상을 점

유했다.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결제서비스는 택시나 배차, 공유자전거, 신선식품 택배 등까지 용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중국 소비산업의 IT 결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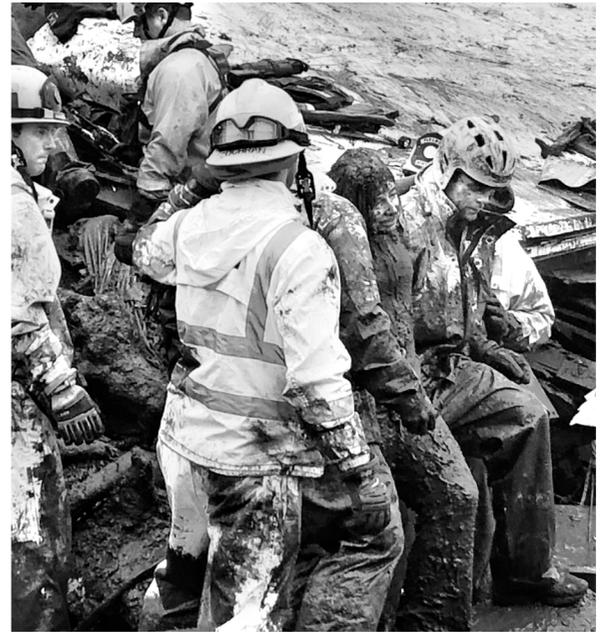
중국경제는 지방정부나 기업부채 증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연간 6%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개인소비도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 그 결과 인프라를 장악한 양사는 중국 소비시장의 상징이다.

텐센트는 홍콩시장, 알리바바는 미국시장에 상장하고 있어 해외투자자의 자금도 물리기 쉽다. 이 2사만이 아니다. 갑시카메라 세계최대 기업 하이커비전은 1년 새 시가총액이 2.6배 늘어 40위가 됐다.

중국공상은행이나 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은 나란히 시가총액이 늘었다. 4대 은행 합계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탄탄한 국내경기를 배경으로 융자 수입 확대가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 상위 100사 가운데 중국 기업은 47개사로 절반 가까이 접했다. 일본은 중국에 이은 2위로 32개사였다. 일본기업 가운데 소니는 전자부문 부활로 36위, 닌텐도는 게임기 부활로 46위였다.

아시아 전체의 시가총액은 25조752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전년도 1%포인트 올랐다.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아시아기업은 19개사였다.



미 캘리포니아 산사태 13명 사망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 몬테시토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진흙더미에서 구출한 14살 소녀를 옮기고 있다. 이를 연속 몰아친 폭풍우와 산사태로 휴더미와 산불에 타고 남은 잣대, 잔해, 나뭇가지 등이 활썰러 내려오면서 주택가 가옥 여러 채를 덮쳤다. 샌타바버라 카운티 소방당국과 경찰국은 이날 오후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25명에 이한다고 밝혔다.

사우디판 적폐 청산 왕세자

이슬람 극단주의도 바꿀까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판 적폐 청산 작업을 추진 중인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사진) 왕세자가 지난 40여 년 간 사우디 국민의 생활을 통제해온 종교적 극단주의를 다음 세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근본주의 종파인 와하비즘을 신봉해온 사우디 왕가는 그동안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본주의 이슬람을 '수출'해왔다.

특히 파키스탄 등지의 이슬람 율법 학교 등을 재정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 등 국제적 지하디스트들을 양성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탈(脫)석유' 사우디 장래를 모색하고 있는 32세의 젊은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왕자들과 부유층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대적 사정 작업에 나선 데 이어 사우디인들의 생활을 옥죄어온 종교세력의 권한 억제를 다음 세신 목표로 설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전했다.

이에 따라 과연 사우디가 시대적오적인 보수적 이슬람국 이미지로부터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여성의 운전과 음악 콘서트 등을 허용한 것도 이러한 종교적 영향력 감소 정책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의 경제적 현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우디를 보다 관대한 이슬람국으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북핵 명분...미국, 일본에 1400억짜리 미사일 판매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갈수록 커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 일본에 총 1억3300만 달러(약 1426억 원) 어치의 탄도요격미사일 구매를 승인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무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 2A' 요격기에 사용될 미사일 4기와 관련 장비다. 레이시온사와 BAE 시스템스가 제조한 이 요격미사일은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 배치 이지스 시스템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다. 해상과 지상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해당 미사일과 장비의 일본 판매를 최종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요격미사일의 일본 판매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위협 받는 동맹들에 추가로 방어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산업



SM-3 요격미사일

(레이시온 홈페이지 캡처)

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요격미사일 도입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군사장비 판매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유를 맞추는 조치라고 A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때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입하면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직접 무기 세일즈에 나선 바 있다.

美 "중국 남중국해 군사화는 국제법 도전"

국무부 정책기획관 비판

중국이 남중국해의 여러 인공섬을 속속 군사 기지화하자 미국과 필리핀에 이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훅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8일(현지시간)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외교·안보 대화의 전면에 부상했다"며 "중국의 도발적인 남중국해 군사화는 국제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그들(중국)은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국제 질서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 국제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비행하고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어업권과 자원 영유권 등을 놓고 인접국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해역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일대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비행훈련을 강화하자, 이에 맞선 미국은 남중국해에 군함을 잇달아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고 있다.

훅 정책기획관의 강경한 발언은 중국

의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압박 공조 등을 위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가 가속하면서 미 행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일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중반까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 호양사군도)에서 인공섬 확장을 계속했다. 지난 몇 달간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 쯔양사군도)에서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해 이들 시설의 전체 면적이 29ha에 달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와 비판에는 필리핀도 가세했다.

델핀 로렌zana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중국은 이들 인공섬을 군사 기지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 수비대가 섬에 주둔하고 무기가 배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관방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기존 입장 되풀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한국의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0일 재차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합의와 관련, 잘못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가 장관은 "합의를 착실히 실행해 가는 것, 이것이 양국이 요구된다"며 "우리나라는 확실히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외교부의 전일 새 방침 발표에 대해서도 "이러한 종류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한 데 대해 "발언 하나하나

에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미·일, 한미일 사이에 정상 레벨을 포함해 긴밀한 연대, 연락해 온 만큼 압력을 한계까지 높여 북한에 정책을 변경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판문점에서 전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 "한미일이 확실히 협력해 갈 계획인 만큼 우선 한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협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향후 대응을 조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 120만평 ▶ LG전자 - 110만평 ▶ 미군기지 ▶ 평택 항 ▶ 고덕신도시 520만평 <p>총 7필 지 분양</p> <p>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p> <p>1필지(약 200평)</p> <p>★ 평당 200만 → 할인 130만</p> <p>(기타 평택 투자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p> <p>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경매교육</h3> <p>1) 이론 실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p>2) 실전 투자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p>3) 경매 평생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p>경매물건 아파트 추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산구 신가동 대방노블랜드 (33평) 감평가 3억7백 → 최저가 2억1,500만 2) 북구 운암동 나산아파트 (24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6백 3) 광산구 정덕동 수원자이 (47평) 감평가 4억2,300만 → 최저가 2억9,600만 <p>[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p> <p>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평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 2)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평가 11억 → 최저가 3억6천 3) 남구 봉선동 (상가건물) 감평가 47억 → 최저가 47억 4) 광산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감평가 22억 → 최저가 22억 5)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히딩크호텔 감평가 88억 → 최저가 62억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7)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600만 8) 광산구 비아동 (주유소) 토지 546평 건물 178평 감평가 18억8천 → 최저가 18억8천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평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 11) 북구신안동 (모텔)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12) 장성 북일면 (요양병원)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p>A.P.T · 주택 · 공장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 화정동 (주택) 토지 58평 건물 47평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6천5백 3) 서구 마북동 (주택) 토지 67평 건물 29평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1억3천 4)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05평 건물 1,201평 감평가 39억 → 최저가 17억6천 5)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6)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15층 중 13층 (60평) 감평가 5억8백 → 최저가 3억6천 7) 서구 용암동 한신아파트 15층 중 1층 (24평)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8천9백 <p>010-6670-9800 010-7384-7800</p>
--	--	---	--